金·金… 밴쿠버 특수 잡아라

광주 유통업계 선전 기원 할인·경품제공 등 동계올림픽 마케팅 후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선전을 펼치자 광주지역 유통업계에도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1일까지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기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8개를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 총 5억 원의 롯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다. 금메달 9개를 획득하면 당첨 금액이 2배로 올라간다. 경품 행사 기간에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이면 하루 1회에 한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또 동계올림픽 기간 중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푸마, 더블엠, 트렉스타, 써스데이 아일랜드, 게스, 빈폴진 등 일부 패션·잡화매장에서는 가방, 컵, 모자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동계올림픽을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디지털 가전 할인전에 나섰다. LCD TV(40, 46인치)를 10~20% 가량 할인 판매한다.

실제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는 올들어 LCD TV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5%가 늘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이달 31일까지 동계 올림픽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금메달기원 빅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훼미리마트에서 상품 구매 후 영수증에 표기된 행운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행운번호를 무료 다운받은 후 응모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국가대표 응원전'이라는 주제로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기용해 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TV광고 캠페인을 이날부터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방송한다.

롯데홈쇼핑도 오는 28일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으라차차 금메달 대축제'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김연아 귀걸이 등을 증정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혈당 조절 '당조고추' 21일 광주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 이벤트홀에 선보인 서 혈당강하성분인 AGI를 함유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 가격은 1kg에 2만원.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빈곤 탈출 '희망키움통장'으로

광주시 내달 5일까지 신청자 모집

광주시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금액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14억8천300만원이다.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 지원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매달 모두 35만원, 3년간 약 1천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을 통한 적극적 탈 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하거나 창업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선택)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립한 금액은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꿈나래 통장·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지자체서 보조금 선납

22일부터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이 선납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 가운데 30%를 지자체가 선납함에 따라 가입 농민들은 20%만을 내면 된다. 이는 가입농가가 보험료 전액을 먼저 낸 뒤 지자체 보조금을 환급받는 기존 방식이 농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모두 41억원에 달하는 보험료 지원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복숭아·포도·감귤 등 7종이며, 보험 가입기간은 22일~3월31일까지다. 문의 062-220-764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에셋자산 올들어 수익률 꼴찌

한국투자밸류 최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올해 들어 수익률이 꼴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투자밸류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들은 올해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운용사들의 올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운용사는 한 곳도 없었다.

21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200억원 이상인 42개 운용사가 운용중인 설정한 지 한달이 넘은 설정액 10억원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올해 들어 19일까지 수익률을 토대로 운용사별 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수익률은 -6.93%로 평가대상 운용사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의 올해 들어 평균 수익률 -5.21%를 1.72%포인트 밑도는 것은 물론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 수익률 -5.28%보다 못하다.

/연합뉴스

GS칼텍스, 방글라데시 가스전 개발 참여

하반기부터 시추 시작

GS칼텍스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육상 탐사광구인 블록7 개발에 45%의 지분을 확보해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원유를 발견한 캄보디아 및 태국과 탐사를 진행 중인 베트남에 이어 방글라데시에도 진출함으로써 해외 자원개발사업 영역을 넓히게 됐다.

면적이 7천500㎢에 이르는 블록7 광구는 이미 다수의 가스전이 발견된 지역에 인접해 가스자원이 부존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GS칼텍스는 평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방글라데시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셰브론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블록7 탐사정에서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원화 약세 따른 수혜 기대 대형 수출주 중심 분할매수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던 3단계 출구전략 로드맵의 첫 단계였던 재할인율간 금리차 축소 작업이 시작됐다.

여기에는 경기회복세를 훼손하지 않고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FRB의 의중이 담겨있다. 금리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재할인율 인상, 유동성 지원 임시 프로그램 축소,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한 유동성 조절에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에서 작용하는 장치로, 실물경제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중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세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FRB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미 버냉키 의장이 로드맵에서 시장에 공지한 사항이었고, 본격적인 금리인상이나 공격적인 유동성 긴축의 서곡도 아니지만 FRB의 출구전략이 마침내 현실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시장의 심리적 불안까지는 피할 수 없겠다. 그러나 불안심리는 초기에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며, 통화정책에 대한 FRB의 속도조절 속에서 최근 한층 뚜렷해지고 있는 경기지표들의 회복세가 시장의 중심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도 지난 주말의 충격이 심화·확산할 가능성보다는 유럽발 악재의 수습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반등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원화약세는 수출경기 중심의 국내 경기회복세에 긍정적인 환경을 연장시키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투자심리의 조기 안정 가능성을 높여준다.

회복세를 보이던 KOSPI지수는 지난 주말 충격으로 재차 1,600선을 내주었다. 그러나 변동성 높은 횡보세의 장기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추세에 무게를 둔다면 단기 충격을 우량주에 대한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응을 권한다.

특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높여가고 있고 최근의 원화약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수출주들에 대한 분할매수 대응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시장 안팎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흐름에서의 경기회복 및 금융위기의 진정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속도는 더디지만 방향성은 위쪽으로 열어놓는 시각이 유리하겠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